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21가단5304895 손해배상(기)

원 고 박정은

서울 종로구 종로54길 25, 4층 (창신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전세영

피 고 하태원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0, 1425호 (상남동, 디아트리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나무 담당변호사 권영우, 이승현, 이윤정, 안성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윤식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3.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2021. 3. 27.자 준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1. 3. 27. 원고의 스튜디오 사무실 내부 휴게실에서 원고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2021. 3. 27.경 원고의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와의 교제를 종료한 후인 2021. 8. 2. 진술한 내용에 근거한 갑 6호증과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2023. 3. 21. 접수시킨 녹취록을 보태어 보아도 같다).

### 2. 2021. 4. 18.자 강제적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1. 4. 18. 피고의 집에서 원고가 원하지 않은 강제적인 성관계를 실행하고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질내에 사정을 하여 원고는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21. 4. 18.경 피고의 집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원고의 질 내에 사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3호증(92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으로는 피고가 당시 원고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질내에 사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2023. 3. 21. 접수시킨 녹취록을 보태어 보아도 같다).

### 3. 2021. 6. 28.자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1. 6. 28. 원고가 원하지 않은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여 원고는 질 내출혈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2021. 6. 28.경 피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21. 7. 27.부터 자궁 및 질 출혈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갑 5호증, 원고가 작성한 갑 10호증과 을 3호증만으로는 피고가 같은 해 6. 28. 강제적으로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당시 질내 출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2023. 3. 21. 접수시킨 녹취록을 보태어 보아도 같다).

### 4. 2021. 3. 28.자 및 같은 해 4. 18.자 불법촬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1. 3. 28.(원고가 2022. 12. 21.자 준비서면 5면에 2021. 3. 17.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사무실에서, 같은 해 4. 18. 피고의 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이러한 사진이 유출될 것을 염려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박지원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판조 판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 정본입니다.

2023.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구진아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